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세요”

설 제수용품 고르는 법

설 명절을 앞두고 알뜰하고 질 좋은 제수 용품을 고르는 것은 주부들에게 부담이다. 과일과 생선, 육류 등은 수입산과 국내산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라지, 고사리, 꽃감 등 제수용품과 이 시기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식별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도움말을 받아 제수용품 고르는 법을 알아본다.

◇적당한 크기·색깔 선명해야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은 적당한 크기에 색깔이 선명한 것으로 골라야 한다. 좋은 배는 선명한 황갈색을 띤다. 적당한 크기에 무게는 550~650g정도 되는 배가 맛있다. 크기에 비해 무거운 과일은 농가에서 일찍 수확한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진다. 사과는 표면이 거칠고 꼭지 주변이 움푹 들어간 게 좋다.

국산 꽃감은 과육이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이 특징이

과일, 적당한 크기 선명한 색깔, 꼭지 부위 껍질 적어야 도라지, 국산 꺾은 싹, 원산지확인·이력정보 앱 도움

다.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며 탁한 주황색을 띠면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꺾여 있다. 국산 대추는 연한 갈색을 띠며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고 향이 진한 특징이며, 중국산은 진한 갈색으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고 향이 거의 없다. 국산 밤은 알이 굵고 윤택이 많이 나면서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고, 중국산은 알이 작고 윤택이 거의 없으며,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 구입 주의

도라지와 고사리 등 나물은 시중에 중국산이 많다. 깎도라지의 경우 국산은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으며,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씹어 먹기 쉽다. 중국산은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며 깨물었을 때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하다.

국산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은 줄기 아래 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며 질긴 식감을 나타낸다.

국산 취나물은 줄기가 가늘고 변색된 것이 적게 섞여있으며, 잎이 퍼진 상태로 건조되어 모양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은 줄기가 굵고 변색된 것이 많이 섞여있으며, 둥글게 말린 상태로 건조되어 모양이 뚜렷하지 않다.

국산 표고버섯(생표고)은 갓 크기가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갓 표면의 곰이 알아 뚜렷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반면, 중국산은 갓 크기가 둥글고 일정하며 갓 표면의 곰이 깊고 뚜렷한 편이다.

◇이력제 이용

탕에 들어가는 사태나양지 등 국거리용 고기는 붉은색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고기와 고기를 연결하는 질긴 부분)과 같은 결합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결합조직은 폭과 야육수를 내면 깊은 맛을 낸다. 사골은 자



른 면에 붉은색 얼룩이 있고 하얀 연골이 많이 남아있는 게 국물을 잘 우려내게 한다. 산적이나 조리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와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골라야 한다.

국내산 등심은 육색이 선홍색이고 딱심은 진 노란색이다. 국내산 갈비는 뒷살이 붙어있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면 쇠고기 전열대 또는 포장에 붙어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쇠고기 이력정보 앱을 다운받은 뒤 검색창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쇠고기 국산 돼지고기 많이 남아있는 게 국물을 잘 우려내게 한다. 산적이나 조리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와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골라야 한다.

호를 입력하면 된다. 쇠고기 국산 돼지고기 많이 남아있는 게 국물을 잘 우려내게 한다. 산적이나 조리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와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골라야 한다.

국내산 등심은 육색이 선홍색이고 딱심은 진 노란색이다. 국내산 갈비는 뒷살이 붙어있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면 쇠고기 전열대 또는 포장에 붙어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쇠고기 이력정보 앱을 다운받은 뒤 검색창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쇠고기 국산 돼지고기 많이 남아있는 게 국물을 잘 우려내게 한다. 산적이나 조리를 만들 때는 우둔, 설도와 같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골라야 한다.

입 주위는 붉으며 꼬리의 길이는 짧고 두툼하다.

구별하기 쉽지 않다면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된 잠조기와 참돔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소비자들이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 및 품목별 국산과 수입산 식별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농관원 전남지원, 잔류농약 검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은 올해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개발하

고,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확대해 왔다.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올해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전남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 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

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황애란 기자

농협상호금융, ‘최우수 건전성’ 달성

지난해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개선

농협상호금융이 21년 말 기준 연체율이 0.88%를 기록하는 등 지역 농·축협 자산 건전성 지표가 업권 내 가장 우수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7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은 2021년 말 연체율 0.88%로 상호금융업권 최초 0%대 연체율에 진입했으며, 19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21년 한 해 농협은 여신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매각

확대 ▲특례 적용을 통한 적극적 상각 ▲연체율과 과다 농·축협 중점관리 등 전사적 차원의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연체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34%p 감소한 1.31%를 달성했다.

또 그 외 손실을 대비해 적절한 대손충당금비율 및 대손흡수율도 전년 대비 각각 5.1%p, 34.6%p가 증가한 154.6% 및 189.2% 달성했다.

이와함께 ‘클린뱅크’ 사무소는 전국 농·축협의 1/3에 해당하는 393개소가 선정되는 등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농협상호금융은 여신규모 등에서 국내 최대 금융기관으로써, 새해에도 그 위상에 걸맞은 자산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hotelthestar.com

HOTEL THE STAR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편안함과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천년의빛 영광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전 객실 에이스 침대 맞춤 제작 최고급 침구 사용

스탠다드 / 디럭스 투윈 / 프리미엄 디럭스 / 코너스위트 / 프리미엄 스위트

호텔디자이너 본관

호텔디자이너 웨딩컨벤션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

설맞이 aT 이웃사랑 나눔

2022. 1. 26. (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센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한국한센총연합회를 방문, 기부금을 전달했다. /aT 제공

aT, 한센총연합회에 기부금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홍)를 방문,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센인은 전국 9,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립소록도 병원의 투병환자에게 생활용품 지원과 문화향유에 활용돼 한센인의 자활 의지가 고

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한센인과 일반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연금 사업 본격화...132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농지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사업비와 관련된 지난해 99억원 대비 33억원 증가한 132억원을 확보했다.

농지연금사업은 전문가 집단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

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됐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개선된 농지연금이 시작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됐다.

이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초기에 농지연금에 가입, 더 오랜 기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 상품도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중 중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황애란 기자